"공군불심 이제 비상 해야죠"

창립30돌 김재철 공군 군승단장

"공군군승단 창립 30주년을 공군불교가 비상하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16일 오후 7시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공군회관 대연회장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공군군승단 단장 김재철법사(38·군종감실 계획담당관·소령)는 "공군산하 군법당의 의식 및 법당구조, 재정·신도회 규정 등을 통일하는 한편 각 기지별로 일요정기법회 및 사병법우회 법회, 어린이·중·고등부법회, 관사방문법회 등을 활성화해 생동하는 군불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군불교가 공식적으로 불교군종업무를 시작한 것은 지난 69년 6월16일. 이인수법사가 처음 공군법사로 임관(육·해군은 68년)하면서 부터다. 이후 윤주완법사, 지하스님, 성진스님, 이양길법사 등이 차례로 공군법사로 임관, 공군기지법당을 건설(최초의 공군법당은 71년 낙성된 공군사관학교 보라매법당)하고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법당 30곳·법사 20명
1만여장병 신행

현재 공군에는 20명의 군법사(예비역공군법사는 60여명)들이 군포교 일선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를 비롯 30 곳의 법당에서 1만여명의 공군장병들이 신행을 펼치고 있다. 93년부터 매년 공군불자수련회와 공군불자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수련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월간 〈공군불교〉라는 포교지를 월 3천부씩 발행, 공군불자들에게 교리와 신행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또 법당별로 일정한 불사금을 모아 공군사관학교와 교육사에 지원하는 등 군의 정신전력 강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마곡사 진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86년 공군법사로 임관한 김법사는 수원기지 법당의 증축과 군장병 상담활동 강화에 원력을 쏟고 있다.

한편 공군군승단이 공군중앙불교회(회장 고종무소장)와 공동주최하는 창립 3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공군불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군 불자들에게 표창패가 수여된다. 공군 참모차장 이억수 중장, 합참 전략계획본부장 김대욱 중장, 공군사관학교 부교장 김주식 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하고 작전사령부 전병태 대령, 공군본부 호일영 대령, 작전사령부 윤재원 대령이 포교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불교무용단 창단한 손재현교수

"불교무용 매년 한편씩 공연"

"대학시절 스승이 춤을 통해 선교하는 모습을 지켜 보며 불자인 저도 무용으로 불교를 포교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불교포교 전문 무용단인 '손재현 무용단'을 창단해 창단공연 '넋의 소리'로 호평을 받은 동국대 손재현교수(사범대학 체육과)는 오랜 원력을 이룬 지금 계획이 무궁무진하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관음기도 도량, 적멸 보궁 등 전국 기도 성지를 따라 다녔으며 89년에는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으로부터 '옥경화'란 법명을 받을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손 교수의 꿈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불교를 주제로 한 무용공연을 갖는 것. 하지만 사재를 털어야만 하는 현실로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장벽이다.

손교수는 "다음 공연에서는 사찰 입구에서 도량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의 각기 다른 표정들을 무용으로 재미있게 각색해 보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교차로

아미타정토대 입학식 증명

설산 정토사 조실스님은 3일 서울 동산교육회관에서 새로운 신행운동을 펼칠 염불법사를 양성할 아미타정토대학(학장 김재일) 입학식에서 증명법사로 참석해 법문했다.

MBC 北비료보내기에 금일봉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스님은 9일 MBC-TV의 특별생방송 '북녘동포에게 사랑의 비료'를 프로그램에 출연, 금일봉을 전달했다.

만해스님 55주기 추모재

성해 선학원 중앙선원장 스님은 29일 만해 한용운스님의 55주기 추모재를 중앙선원 3층 대법당에서 거행한다.

총무원 법당 낙성법회

효성 법륜종 총무원장 스님은 종로구 수송동 총무원 청사 3층에 30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하고 25일 개원 및 점안대법회를 갖는다.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봉안한 법당은 종단 주요법회 및 회의나 스님들과 신도간부를 위한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저소득 학생에 장학금

혜창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장 스님은 7일 복지관 6층 회의실에서 지역 장애학생 및 저소득가정 중·고생 6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판문점서 통일발원 법회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스님은 3~4일 전국의 간부회원 118명에 대한 통일교육원 일소 교육을 실시했으며, 판문점에서 통일기원 발원법회도 봉행했다.

中 보위차 학술대회 참석

여연 일지암 암주스님은 11일 중국 운남에서 열리는 국제보위차 학술대회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위차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미 등이 논의된다.

북한 식량실태 기자회견

법륜(사)좋은벗들 이사장 스님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정토회관 강당에서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출판기념식 및 북한 식량 난민실태보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02)537-8996

7군단 장병 위문법회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보훈의 달을 맞아 불자가수회의 후원으로 9일 7군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군단장을 비롯한 장병과 육군교도소 재소자 장병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中 중의약大서 명예의학박사

조재호 동국대 의료원장은 9일 중국 흑룡강 중의약대학에서 한·중 양국 교류를 통한 동서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제3의학 공동연구를 위한 양국간 협정식을 거행했다.

동국대 불자교수회장에

김경제 동국대 교수(식물자원학)는 4일 정각원에서 개최된 동국대 불자교수회 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임됐다. 김교수는 건학이념 구현과 전국사찰 순례법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민속문화연구소장에

주강현 문화재 전문위원은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창립대회에서 소장에 선임됐다.

사진동우회 '심상' 회장에

허애영씨는 3일 석왕사에서 열린 제11회 '심상'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신장기증 덕선스님

"화엄경읽다 발심 가르침 실천일뿐"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청년불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스님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현재 전남 함평군 각궁암에서 홀로 거처하며 수행에만 몰두해왔던 덕선스님. 스님은 지난 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우식씨(30)에게 신장을 떼주었다. 정우식씨는 동국대 총학생회장과 대한불교청년회 조직국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불교활동을 펼쳐온 청년불자.

지난 4월 〈화엄경〉을 공부하던 중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발심했다는 덕선스님은 "수행자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방편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몸을 떼어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편안케 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신장기증뿐만 아니라 이미 사후각막, 뇌사시 장기, 사후 시신기증까지 도 서약했다고.

한명우 기자

"95명 참선·염불 용맹정진"

8~11일 군승하안거 실시

"군인정신으로 용맹정진을!"

육해공군군승단(단장 이희용)은 8일부터 11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군승 하안거를 실시했다. 지난 5월29일 전국의 선원에서 2천여명의 선방 수좌들이 일제히 하안거 결제에 들어간데 이어 95명의 군승법사(전체인원 116명)들도 이번 하안거에서 참선방 염불방 간경방 등으로 나눠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9일 격려사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인 위상과 역량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군법사들이 앞장서 군포교의 활성화를 통해 거사불교의 토대를 일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군법사들에게 김태복 소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군포교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군법사들은 마지막날 대의원회의에서 김태복 소장사건에 대한 군승단의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경 기자

구하스님 영결식 종단장 엄수

2일 입적한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해원당(海源堂) 구하(龜河)스님의 영결식이 6일 오전 9시 인천 약사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삼귀의례 법주착어 반야심경에 이어 구하스님 약력보고(화담스님) 추도노래, 조사(정희수 종회의장) 영결사(덕암스님) 추도사(탄공스님) 조시 헌향 헌화 삼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대한불교 화엄종장학회 정희수 이사장, 인천시 조계종 사암연합회장 현성스님, 인천시불교총연합회장 선응스님, 동암사 무활스님, 보화정사 탄공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경주지역 사지발굴·복원 최선"

동국대 매장문화재硏 한병삼 소장

"매장문화재연구소는 경주지역 사지 발굴과 정비에 일차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건설현장에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일 문을 연 동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초대 소장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절터·성보 등과 관련된 역사사료를 토대로 매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불교고고학 이론을 정립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의 찬란한 불교문화와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불국토' 경주에서 절터와 매장된 성보의 발굴과 보존을 도맡을 교계의 전문연구소가 여지껏 아쉬웠던게 사실. 매장문화재연구소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소장은 "매장문화재연구소는 이미 발굴된 역사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곳"이라며 "연구자료를 통해 경주 지역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일도 연구소의 중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건이 성숙되면 문화유산 관련 학술회의, 보존·보호 운동,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2시에 열린 연구소 현판식에는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최규철 부총장, 이원희 경주시장, 대구·경북지역 대학박물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인 사

불교TV

◇총괄국 △국장=강정기 △총괄부장=최세영 △총괄부차장=이상민 △전국부장=신동우 △전국부차장=윤상호

◇사업국 △사업국장=손동용 △사업부 차장대우=천화성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부국장대우=이재한 △차장=노원래

◇총무부 △총괄차장=전병철

◇심의실 △차장=한용우

◇제작부 △제1차장=이현오 △제2차장=김양 △제3차장=김원곤

◇편성부 △부장=황낙연 △편성팀장=김형준 △뉴스팀장=임동민

◇기술부 △총괄부장=양희상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4×6배판 / 값6,000원

'지장사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 천당 보내고 못하면 벌을 주어 지옥 보내는 극단의 사상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제도되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자신의 성불도 포기하겠다는 구제사상 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요, 신앙입니다.

지장사상과 지장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으로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찬술/석용산 스님 · 염음/석효선 스님

이 책에 실려있는 "지장참부경", "지장왕보살지혜심경", "지장경약찬게" 등은 스님께서 직접 찬술하셨으며, "지장예참", "지장왕보살예찬문" 등은 한글로 번역하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 나게 독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①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③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친구하자, 친구하자

이 책들은 그 동안 스님께서 발표하신 글들 중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아 작은 책자로 다시 엮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진정한 자비실천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지장기도법회

●지장예참기도 ▶ 음력 매월 초하루(부산, 대구포교원) 오전 11시
●지장천도기도 ▶ 음력 매월 14일(부산), 18일(대구) 오전 11시
●지장예찬기도 ▶ 매주 수요일(부산), 금요일(대구) 오전 11시